

썩~썩 크는 글로벌 소형 SUV 시장 기아차, KX3 타고 공략

가격 경쟁력·품질 강화 중국 소비자에게 월평균 5000여대씩 팔려



기아차가 중국에서 출시한 소형 SUV KX3.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12일 자동차시장 전문조사업체 IHS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12년 719만대에 불과했던 글로벌 소형 SUV 시장 규모는 2018년 1097만대로 53%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인도와 중국 등에 현지 모델의 소형 SUV를 잇따라 출시하는데 이어 미국과 유럽에도 신형 SUV를 차례로 선보이는 등 글로벌 SUV 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가기로 했다.

현대차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소형 SUV 크레타는 한 달간 1614대가 판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현대차의 해외 전략형 소형 SUV인 크레타는 8월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며 내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브라질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에

선 신형 투싼과 스포티지도 선보인다.

지난 3월 국내에 먼저 선보여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형 투싼은 8월에 미국, 9월에는 유럽에 각각 출시된다. 3분기에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도 카니발, 쏘렌토에 이어 또 한번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소형 SUV

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양대 주력 모델이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현대차의 현지모델 ix25는 올해 들어 5월까지 4만948대가 판매돼 중국 소형 SUV 시장에서 현대의 배젤(4만2354대)에 이어 판매실적 2위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KX3 또한 본격 판매된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000여 대씩 팔리는 등

꾸준히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최근 연이은 신규공장 착공에 들어간 현대·기아차는 '창안기차', '창청기차' 등 중국 현지업체들의 대대적인 저가 공세에 맞서 내년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대폭 강화한 소형 SUV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간간해진 연비 검증에...

디젤바람 주도 수입차들 줄줄이 하향조정

국내 승용 디젤 바람을 주도했던 수입차들이 연비를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자동차업계의 '연비 부풀리기' 논란 이후 정부의 연비 검증이 간간해지면서 각 업체가 연비를 보수적으로 낮춰 신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ℓ당 18km가 넘는 연비를 자랑하던 일부 준중형급 수입차는 국산 중형 디젤보다 연비가 뒤처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2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달 1일자로 준중형급 인기 모델인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연비를 기존의 18.9km에서 16.1km/ℓ (17인치 타이어)로 낮췄다. 전년보다 14.8%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중형급 세단 쏘나타와 K5 디젤 모델의 연비인 16.8km/ℓ (16인치 타이어)와 16.5km/ℓ (17인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5년 국내에 시판된 골프는 ℓ당 18km가 넘는 높은 연비를 앞세워 국내 수입차 가운데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 잡은 차종이다. 이번에 연비를 낮춘 골프 1.6 TDI 블루모션은 유로5 모델로, km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101g에서 121g으로 19.8% 증가했다. 대신 출력은 현재 105마력에서 110마력으로 높아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3분기 중 유로6 모델인 연비를 낮춘 유로 5 모델은 8월 말까

지 통관된 물량에 한해 판매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연비 논란 등을 겪은 뒤 독일 본사 차원에서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유로6모델이 조만간 도입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모델의 연비를 다시 신고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를 포함해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폭스바겐 이외에도 최근 수입업체는 유로6가 적용된 디젤 모델을 내놓으면서 연비를 잇달아 낮췄다.

2000cc급 디젤 모델을 얹은 BMW 118d의 경우 기존 연비 18.7km/ℓ에서 17.4km/ℓ로 7% 가까이 떨어졌다. BMW 측은 엔진 출력이 최고 143마력에서 150마력으로 높아지면서 연비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푸조의 1.6 디젤 모델도 기존 1.6 모델의 연비 18.4km/ℓ에서 12% 하향 조정된 16.2km/ℓ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도부의 연비 검증이 간간해지면서 연비를 과장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각 업체들이 사전에 보수적으로 연비를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 18.9km에서 16.1km/ℓ로 연비를 대폭 낮춘 폭스바겐 1.6 TDI 블루모션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여름엔 가스라이터·탄산음료 두고 내리면 안돼

Q)여름철 차량 내부에 절대 두고 내리면 안 되는 것은?

A)가스라이터나 휴대용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할 수 있어서 절대 놔두면 안됩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제품도 과열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

비게이션도 수건을 덮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주스 등 밀폐된 용기 안에는 캔이나 플라스틱병도 높은 온도에서 내부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팽창해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쌍용차 티볼리 디젤 모델 출시

쌍용자동차가 상반기 히트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티볼리 가솔린 모델에 이어 디젤 모델도 출시했다.

쌍용차는 최근 강원도 인제 스피드미에서 티볼리 디젤 발표회를 열고 시판에 들어갔다. 티볼리 디젤 모델은 3년 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유로6 e-XDi160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115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ℓ당 15.3km(2WD 자동변속기 기준)다.

티볼리 디젤은 특히 실제 주행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1500~25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해 빠른 응답성과 경제적인 주행성능을 자랑하며 동력전달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주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과 함께 온로드·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가솔린 4WD 모델도 함께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했다. 4WD 가솔린 모델은 도로 상태와 운전 조건에 따라 전륜과 후륜에 구동력을 0~50% 최적 배분하는 스마트 4WD 시스템이 적용된다. 티볼리 디젤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TX 2045만원, VX 2285만원, LX 2495만원이다.

티볼리는 지난달 내수 3630대, 수출 2409대 등 모두 6039대가 팔리는 등 지난 1월 출시 이후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시판 차량 연비왕은 '푸조 208'

복합연비 21.1km/ℓ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연비 효율이 가장 좋은 차는 어떤 차량일까? 에너지 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인이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자동차 연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 이 사이트에 따르면 1위는 '푸조 208 1.4 e-HDi 5D'가 차지했다. 배기량 1.4ℓ의 소형 경유차인 푸조 208의 복합연비는 21.1km/ℓ이다. 이어 도요타 프리우스(21.0km/ℓ)와 시트로엥의 DS3 1.4 e-HDi(20.2km/ℓ), BMW 320d(19.7km/ℓ), 미니 쿠퍼D(19.4km/ℓ)가 2~5위에 포진해 있다. 상위 10위권 내에 국산차로는 현대차의 엑센트 1.6 디젤(5도어, 4도어)과 기아차의 프라이드 1.4 디젤(5도어 2015년형)이 19.0km/ℓ의 연비로 공동 8위에 올랐다.

푸조 208의 연비 효율 비결은 뭘까.

이 차의 공식 수입사인 한불모터스는 차량의 경량화를 높은 연비 달성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전면에 알루미늄 범퍼를 탑재하고 하체 프레임 구조를 개선해 경량화된 덕분에 시내 주행시 15%가량의 연비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



푸조 208 1.4 e-HDi 5D

또 정차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움직이면 0.4초 만에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인 '스톱 앤드 스타트 시스템', 엔진의 힘을 바로 휠로 전달하는 방식의 '수동기반 자동변속기(MCP)'가 연료 소비를 줄여 준다는 게 한불모터스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런 연료소비 저감 노력 때문인지 푸조를 생산하는 PSA 차량은 상위 30위권에 8종이 올라와 있다.

30위권에 포함된 국산차로는 엑센트 1.6 디젤과 프라이드 1.4 디젤 외에 현대차의 아반떼 1.6 디젤(18.5km/ℓ, 공동 22위)과 엑센트 1.6 디젤 DCT(18.3km/ℓ, 공동 29위)가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p>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원천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이경숙갤러리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휴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 ☎062)224-2880</p>	<p>(주)세원모터스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지동차경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p>	<p>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서양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량 ☎062)653-3676</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승순 ☎062)222-6866</p>	<p>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정성가득치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신원은행 건물 6층 임플란트 보철, 치아교정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유화 ☎062)261-2288</p>	<p>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죽, 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p>	<p>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냉고, 주물럭, 오리뚝딱, 오리 장어탕 ☎062)401-5253</p>	<p>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p>	<p>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를리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p>	<p>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사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다나베움즈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1구입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토탈 광산구 비아소빙서와 중흥파크사이 빙어조림, 갈치조림, 이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관복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 동구청 1층) 핸드폰, 액세서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p>	<p>미락식당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정식, 개장,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p>	<p>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원) 부대찌개, 찌개, 찌개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p>